



일도2동의 꿈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19년 8월 1일
 ■ 편집디자인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두맹이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김두경
주민자치위원장

예부터 중국에서는 제주도(탐라국)를 주호, 영주, 동영주라 불렀다.

영주란 신선(神仙)이 사는 곳이란 뜻인데 정말 탐라국엔 신선이 살았을까?

탐라국 개국설화에서처럼 삼성(三性)이 모흥혈에서 발원하여, 벽랑국(碧浪國)의 세 공주를 맞이하여 혼인지에서 혼인을 하고, 서로 싸움 없이 평화롭게

활을 쏘아 살 곳을 정하고(이를 사시복지라 함 : 射矢卜地),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주변국과 교역을 하며 그들의 삶을 영위할 때는 신선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1002년, 1007년 화산폭발에 두려움을 느낀 탐라국 지배층이 고려에 복속을 원하고, 제주(濟州)라는 이름의 한 고을이 되면서부터 제주도민의 삶은 평화롭지만은 못했던 것 같다.

고려시대의 삼별초 난과 목호의 난을 거치고, 조선시대의 부패한 관료와 조세정책에 반대한 수많은 민란을 거치면서 제주도는 반란과 유배의 땅이 되고 고난과 고통의 땅이 되었으며, 4·3을 거치면서는 침묵과 통곡의 땅이 되고 말았다.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일도2동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개척설화의 고을라가 살았던 일도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동성, 칠성대, 공신정, 운주당, 해신대, 달관대 등 많은 문화유적지와 유물을 남겼으나 일도2동으로 분동되면서 일도2동에 남아있는 유적지는 아무것도 없다.

매계 이한우(梅溪 李漢雨)선생이 노래한 영주십경(瀛洲十景)속 고수목마는(성내에서 바라본 고마장에서 뛰노는 말들의 풍경) 근대화와 택지개발로 5·16도로의 마방목장으로 오염되어 버렸다.

그래도 찾으려면 두맹이골목인데 먼저 두맹이골목이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제주동초(조선시대 연무정, 일제시절엔 감옥, 미군정시절엔 조병창)앞을 구중동이라 하고 여상 앞을 두문동(두머니머세)이라 했으며, 지금의 제주시농협 본점을 두맹이동산(관덕정에 앉아 제주읍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가를 찾다가 동대머들, 신산모루, 나무통, 두맹이 동산이 후보에 올랐고 그중 가장 높은 곳이 두맹이 동산이 되었으며 제주읍성의 대맹이라 했다가 조금 유식하게 머리두(頭)를 써서 두맹이라 했다는 설이 있음)이라 했는데, 두맹이골목은 구중로와 두문로 사이에 걸쳐 두맹이동산 까지 잇는 320m에 이르는 거미줄 같은 골목길을 이룬다.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 골목 일대는 제주 시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일도2동의 다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많은 변화를 보이는 데 비해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2008년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사)탐라미술인협회 공공미

술연구회가 '기억의 정원-두맹이골목'으로 응모 당선되어 이 골목 양쪽을 따라 늘어선 주택들의 담장에 당선작들을 그렸고 골목전체를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했다.

2009년 상반기에 두 번째 프로젝트, 하반기에 세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2016년부터는 지역참여예산으로 두맹이골목 예술정원 활성화 프로젝트, 예술정원 조성사업이란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여 두맹이골목을 예술정원화했으나, 주차시설·화장실·지역 먹거리 장터 미흡 등으로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두맹이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을 제시해본다.

첫째, 원도심투어코스와의 편입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시, 관광협회 및 여러 단체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맹이골목은 주차장 부족, 먹거리 장터 부족 등으로 투어코스에서 빠지는 상황이다.

(사)질토래비의 경우 동성 돌하르방 신선길로 명명하여 자연사박물관→삼성혈→광양당터→을묘왜란벽화→제이각→동성→운주당터→달관대, 해신대, 공신정터→삼천서당터→공덕동산→금산공원→서자복공원→적산가옥→연무정터→두맹이골목→두맹이북지관→신선길→신산공원으로 운영하도록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

둘째, 집중과 테마의 거리 화이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수익이나 투입하면서도 두맹이골목을 가보면, 여타의 지역과 다른 특화된 벽화나 옛것과 연계된 벽화도 없고 테마 화 되지도 못하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중동네는 조선시대 연무정, 신선길은 신선과 연계된 트릭아트 포토존, 금속조각, 조각돌벽화 등으로 조성했으면 한다.

또한 상징성 있는 구조물도 설치하고, 자동차를 세우는 큰길보다는 걷기에 좋은 좁은 길을 우선하여 벽화를 그리고, 기왕이면 첫 번째의 투어코스 중심으로 조성했으면 한다.

셋째,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 공모이다.

현재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복합 프로젝트로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사업이다.

신산모루 곱들락 마을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구중동네 부근부터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특히 두맹이골목 인근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혼재돼 있고 노년의 집주인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재개발이 어려우면 재생사업으로라도 조금씩 지역을 변화시켜나가는 방법을 모색함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넷째, 제주도에 의한 중앙병원 매입 재추진이다.

현재 제주도에 있어 감정이 이상의 건물가액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병원 매입이 보류된 상태이나, 매입을 재추진하여 건물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고, 중앙병원 주차장을 주차 빌딩 화 할 수 있다면 두맹이골목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선결 조건은 지역주민이 먼저 지역 발전에 대하여 고민 하고 선두에 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뒷집 지고 헛말 하면서 떡고물만 챙기려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후대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할 줄도 알고, 지역 발전을 위해 작은 이익은 포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껀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맹이골목의 활성화가 쉬워지리라 생각한다.

지역민이 앞장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다면 두맹이골목의 슬럼화를 막고 원도심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행복의 조건과 기본소득론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사람마다 국면에 따라 원하는 것이 약간 의견이 다를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 행복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다들 불만이고 불행이다. 왜 그럴까? 예컨대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일까? 아니면 사회적-구조적 조건들이 행복을 막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소확행'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다. 요즘 특하면 긴 언어를 줄이는 유행에 따른 것이겠지만, 어떻게 행복 추구를 '큰 데서 아닌 작은 데서' 그리고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찾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최소한의 '소확행'이라도 누리고 있는 사회일까?

UN이 발표한 <2018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7위로 2013년의 41위에서 16단계나 떨어졌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위의 2018 보고서에서 1위-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이다. 사실상 다 유럽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이 부자인 나라들이기는 하지만, 다 상위권 부자인 나라들인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가 부자인지는 측정 도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2018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일인당 구매력 평가기준(PPP)에 근거하여 GDP 순위를 발표한 바 있다. PPP 달러로 1위 카타르(12만 8700), 2위 마카오(12만 2490), 4위 싱가포르(9만 8010), 6위 브루나이(7만 9730), 8위 아랍에미리트연합(6만 8660), 9위 쿠웨이트(6만 6670), 10위 홍콩(6만 4530)으로 중동과 아시아 나라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다. 한국은 28위 영국, 29위 프랑스, 31위 일본에 이어 32위에 위치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 국민들의 삶은 불만

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왜 그럴까?

유엔의 2088 보고서에 따르면, 견고한 사회적 지원과 반부패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이들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이며, 바로 위의 두 개의 정치사회적 조건이 이들 나라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행복 조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회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이고 조건일까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잘 채워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인식의 전환이면 가능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물질적 토대는 한국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 놓았던 행복 추구를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유엔의 행복보고서는 국민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이라는 6가지 지표로 각국의 행복지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위의 6가지 지표에서 5.88로 OECD 평균 6.62보다 뒤떨어져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적 지원 지표에서 OECD 평균 0.36에 비해 한국은 0.2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부패에서도 OECD 평균 0.45에 비해 한국은 0.22의 만족도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은 좋은 정부라는 점에서 하위에 머물고 있다.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나마 기대수명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 0.43에 비해 0.58로 높다. 인간의 장수욕을 채워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는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듯싶다. 그리고 1인당 GDP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 0.18에 비해 0.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물질적 조건에서는 한국도 행복감을 높이는 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로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물질적 제

원을 웰빙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치력의 부족 내지는 공동체적 관심의 결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 찾기일 것이다. 그게 권력 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그래서 행복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만족과 기쁨이 충분한 삶이 되길 원하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냥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에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각자 '소확행'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마침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관점에서 '적게 써도 행복해지는 소비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 널리 읽혀지고 있다.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3가지 방법에 재삼 주목해 보기로 하자. 즉, 1)타인을 위해 돈을 써라, 2)체함에 돈을 써라, 3)시간을 구매하라 그것이다. 밥을 사든 선물을 사주든 기부를 하든 타인을 위해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이나 콘서트 등에 돈을 쓰고, 또 귀찮은 일들은 돈을 주어서 남에게 맡기고는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행복이 배가될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돈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부하고, 체험하며, 시간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이 요청된다. 제주도민들이 행복을 배가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제주도정에게 기본소득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회적 지원이 절대 요청된다는 것은 유엔 행복보고서가 지적한 사항이다.



기고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약속



고광언
주민자치위원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2018. 8월부터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시민의 주인인 행복한 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도 2동에서는 기초질서 문화 정착이 곧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 사회 진입의 시발점으로 보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환경질서·교통질서·도로질서로 크게 구분하여 자생

단체 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관련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환경질서인 경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공공장소에 담배꽂초 등 투기 행위

▲교통질서인 경우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도로질서인 경우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안두기 등 중점 계도 및 홍보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힘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로 공공도덕과 법규준수 등 아주 사소한 것이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 사례를 보

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꽂초를 버리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채 침을 뱉거나 공공장소에서 남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전화를 통화하거나 이미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운전자, 인파가 부쩍 대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취객들의 형태와 무자비 하게 버려진 온갖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산과 계곡을 들 수 있다.

이제 시민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기고

부부란 무엇인가



서 흥 식
수필가

우리 주변에는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갈수록 도덕성의 해일로 비 인간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인간답지 못하게 되어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성장을 하고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성장 배경과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혼 전에 몇 년을 연애하고 사귀다가 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 “최고의 짝”이라고 생각하며 꿈을 꾸었지만 많은 부부는 실망을 하면서 살아간다.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는 부부 화락을 표현하는 좋은 글이 많다. 남편이 노래하면 부인이 따라한다는 “부창부수” 평생을 함께 늙어간다는 “백년해로” 하늘이 정해준 배우

자라는 “천정배필” 등이 있다.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서로 갈등이란 없을 것이다. 허나 살아가면서 부부 싸움은 있게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언동은 피할 일이다. 배우자에게 손찌검은 습관이라고 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다. 남녀가 만나 부부로 사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다. 부부의 인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에서 참으로 기적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오랜 역겹의 인연이라야 부부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어렵게 맺어지는 부부생활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소중하고 애뜻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쉽게 만나 결혼하고 살다가 또 너무 쉽게 갈라서기 때문이다.

지상 보도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인들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참으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이혼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사실 남과 남이 만나 한 몸으로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부부갈등과 불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부의 개념을 오해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부부는 흔히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심이체이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아무리 못 믿을 세상이라지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며 행복을 향하여 함께 가야하는 것이 부부인 것이다. 사실 이심이체인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부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한평생 동행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화목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애정이 있을 때 비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사는 동안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으로 행복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기고

꿈 해몽



김 태 우
수필가

비몽사몽 뒤척이다 한밤중 꿈을 꾸게 되었다. 소나무 잎이 바닥에 쌓여 있지만, 나무가 간간이 있어 들뜬인지 숲인지 분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장소였다. 그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걷고 있는데 땀뻘 서너 마리가 느닷없이 내게로 달려드는 것이었다. 사나운 땀뻘과 부딪치

면 다칠까봐 겁이 났다. 손으로 위협하면서 주둥아리를 발로 힘껏 차 보아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했다. 땀뻘을 피하려고 나무 위로 오르려 해도 잔가지로 그럴 처지도 못되었다. 온 힘을 다해 쫓고 쫓기면서 승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며 눈을 떴더니 꿈이었다.

눈을 뜨고서도 찢찢하면서 무서웠다. 이불속에서 흥몽은 아닌 것 같고 길몽이라 생각하기에도 석연치 않아보였다. 하루에도 서너 번 꾸는 개꿈이려니 생각하고 날이 밝기를 빨리 기다려야 했다.

날이 밝자 일어나 벽시계를 쳐보면서 책상 위에 있는 일정이 표시된 탁상달력을 봤더니 육지에 사는 딸이 32평 LH아파트 분양을 받고 이사하는 날이었다. 높은 청약률을 뚫고 아파트가 당첨되어 이사하는 딸이 기록해 보였다. 이사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웃고 떠들면서 한창 이사 중이라 했다. 좋아하는 모습이 어제 밤 꿈이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

이사 진척상황을 물어본 후 통장에서 짬뽕돈을 인출하고 딸에게 이사 축하기념으로 백만 원을 부쳐주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일찌감치 한국가곡을 듣다 잠이 들게 되었다. 잠을 자면서 거짓말 같은 판타지 꿈을 또다시 꾸게 되었다.

한적한 로또복권방에서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다. 용돈도 궁한데 복권이 당첨되어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첨번호를 보았더니, 2, 3, 4, 7, 8. 연달아 같은 숫자가 당첨번호였다. 비몽사몽 좋아하면서 눈을 떴더니 꿈이라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도 경기도 수원에 사는 딸 이사를 도우러 간 상태이다.

날이 밝자 독달같이 로또복권방으로 가서 만원을 주고, 하나는 꿈에서 보았던 당첨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한 장과,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는 것까지 합쳐 두 장을 사게 되었다. 복권을 사고는 복권 추첨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일주일의 지나 한참 후에야 꼬깃꼬깃 접어서 지갑에 숨겨 놓은 로또복권을 우연히 찾게 되었다. 벼슬에 오른 듯이 부푼 표정으로 휴대폰에서 복권번호를 검색했더니, 예상외로 판이었다. 꿈에서 보았던 숫자는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자동으로 기입된 복권은 등수에는 들지 않아도 두 개씩은 연달아 맞추는 것이었다. 이왕이면 하늘이 도와준 셈치고 기분 좋게 세 번호만 맞추었더라면 5등으로 본전을 찾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꿈속에서 본 복권번호가 황제수 인줄 알았었다. 돈 욕심이 생기면서 복권 꿈을 꾸게 된 것으로 보였다. 현실 같은 꿈을 꾸고서 사지도 않던 복권을 오랜만에 사기는 했지만 기대는 부풀면서 길조로 여기기도 했다.

프로이드는 꿈을 어떤 특징과 자주성은 수면 중 사람에게 가해진 육체적, 심리적인 자극을 환각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원망 충족이라 했다. 몇 주 전 땀뻘을 만나 숨을 곳을 찾으며 기겁했던 꿈은 ‘기쁨’ 같아 보이고, 로또 당첨된 꿈은 딸과 사위가 이사를 잘하나 걱정된 꿈같기도 했다.

악몽을 꾸면 불길한 생각이 들고, 백일몽같은 꿈을 꾸면 운수가 좋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지만, 꿈은 무지개와 같은 존재다. 꿈속에서는 실현을 바라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건 / 강 / 상 / 식

김 동 근

더운데 뭘 목욕? 몸에 쌓인 독소 짹 빼줘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피부가 열을 발산하려고 땀을 흘리며, 땀과 함께 독소가 배출된다.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독성 물질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배설기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또한 면역세포가 늘어나 면역력이 높아지며,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가져다주는 목욕 해독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목욕 해독요법, 이렇게 하자

목욕 해독요법을 하는 시간은 15~30분이 적당하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피로가 쌓여 탈진할 수 있다.

▲반신욕=38도의 물에 배꼽 부위까지 담근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물 밖으로 나와 천일염으로 배나 허벅지 등 지방이 붙기 쉬운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면 좋다. 5분 정도 몸을 말린 후 샤워하고, 다시 따뜻한 물에 몸을 20분 정도 담근다.

▲발한목욕=38~42도의 물에 입욕제로 천일염을 1kg 넣고, 15~25분 몸을 담근다. 물에서 나온 뒤 큰 타월로 몸을 감싼 채 이불을 덮고 눕는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된다.

◇땀 많이 낼 필요는 없어

갑자기 오랫동안 목욕을 하면 독성 물질이 한꺼번에 배설기관으로 모이면서 두통과 구토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목욕 해독요법을 할 때는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 몸을 익숙하게 만들고, 서서히 자주 해야 한다. 땀을 통해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땀을 많이 낼 필요는 없다. 독소와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땀이 안 나더라도 목욕 해독 효과는 있다. 특히,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목욕 중에 물을 마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15분 목욕하면 50mL 정도의 땀이 배출되므로, 목욕 전후 비슷한 양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출처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전해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 일도2동 방위협의회 창립 40주년 맞이 -

월남참전유공자 초청 위안행사를 마치며...



박경호
일도2동 방위협의회 회장

박 경 호

일도2동 방위협의회 회장

올해는 일도2동 방위
협의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고 적의 침투
및 도발에 대한 지역 방
위 활동과 지역 사회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는 방위협의회는
1979년 대통령 훈령을

통해 창립되었다. 또한, 일도2동 방위협의회는 국가 비상
사태 발생 시 일도2동 소속의 예비군 2개 중대를 지원하
고, 평시에는 주민 안보 의식 고취와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
이하여, 80여 명의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을 모시고 방위
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일도2동 내 도의원들과 자생단체
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 초청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월남참전 유공
자 위안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신
방위협의회 역대 회장과 40여명의 회원의 노고에 다시한
번 지면을 통해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특히 행정 지원 없
이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만 치러지는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동장님
과 예비군동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현도협
월남참전 유공자회장, 부관인 월남참전 일도2동 분회장
께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위안 행사가 되었다.

이번 월남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전용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여전히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절 꽃다운 청춘의 시기에 세계의 자유와 평화 질서를 지키고자 부산항에서 미 해군 수송함에 몸을 싣고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애인, 정든 친구를 두고 전쟁터로 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항 제3 부두를 떠나 전쟁터로 떠나는 그 날, 거대한 미 수

송함은 우렁찬 뱃고동을 울렸고, 경남여고와 부산여고의 합창단을 포함하여 이들을 환송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는 “국군아저씨 이기고 돌아오라”며 힘껏 소리쳤다. 수송함에 탑승한 젊은 용사들 역시 그들을 바라보며 “잘 있거라 부산항”, “남-남쪽 만나면 나라 월남의 달밤 십자성 저 별빛은 어머님 얼-굴...” 복받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목놓아 부르고 또 불렀다. 당시 파병장병들의 심금을 울리던 ‘월남의 달밤’이라는 유행가는 월남참전용사들의 모임에서는 지금도 빠지지 않는 노래가 되었다.

1965년 월남전 파병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10달러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할벗고 굶주리며, 하루 세끼 밥 먹기도 어려웠던 '참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 힘든 시절, 국가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바쳤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마군 비행기에서 뿌려대는 안개비 같은 고엽제를 맞으며 적군과 사투를 벌인 전투 병사들은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 숭고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낸 목숨과도 같은 전투 수당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어 국가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각종 국가 기간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30만 명의 월남참전용사의 애국심과 희생적 역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참전 용사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필자 역시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튼튼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일도2동 방위협의회 회원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예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참전 용사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항상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갖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생 / 생 / 중 / 계 / 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두경)

특화프로그램 행사-천연염색 체험



2019. 07. 27(토) 제일지역 아동센터 학생 30명과 함께 특
화프로그램 행사로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했다.

7월 정기회의 개최



2019. 07. 11(목) 2019년 상반기 주민센터 운영 결과 보고
및 제주의 역사문화 체험의 건, 유스에코리더 프로그램
운영의 건을 안건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화산섬 용암동굴 체험행사



2019. 07. 06(토) 화산섬 용암동굴 체험행사도 한림읍 한
들굴을 방문하여 동굴오염방지, 생태계 보호노력, 환경보
존 교육 및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휴가철맞이 대청결 운동



2019. 06. 28(금) 휴가철맞이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삼
성교 다리 밑 쓰레기 청소를 실시했다.

행당제2동 주민자치회 방문



2019. 06. 17(월)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주민자치위원 19명을
맞이하여 두맹이골목 탐방 안내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
유했다.

사/람/과/사/람/들

통장협의회,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 및 클린하우스 단속 전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인)에서는 2019년 6월부터 4개 조로 편성하여 매주 월요일 17:30부터 일도2동 관내에서 기초질서지킴이 캠페인 및 클린하우스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일도2동 방위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 위안행사



일도2동방위협의회(회장 박경호)는 2019. 06. 14일(금) 오전 10시부터 일도2동 복지회관에서 월남참전유공자 80여명을 모시고 위안행사를 가졌다.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버스승차대 환경정비 실시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동진)에서는 2019. 07. 26(금) 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비가림 버스승차대 세척 및 불법광고를 정비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새마을부녀회 국수거리 화단정리 및 꽃심기 실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에서는 2019. 06. 18(화)에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수거리 화단변에 화단정리 및 꽃길 조성에 나섰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불법 적치물 단속 전개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중)에서는 2019. 07. 15(월) 주민센터 직원 및 단체 회원 합동으로 관내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일도2동연합청년회 야간 방범활동 전개



일도2동연합청년회(회장 진두선)는 2019. 7. 24(수) 인화초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합동으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인화초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방범활동을 전개했다.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 주변 정화 활동 및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전개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19.07. 11(목)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점검 캠페인'을 펼쳤다.

장애인지원협의회, 저소득장애인가구 밀반찬 지원 및 장애인 가구 방충망 교체사업 추진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이승훈)는 2019. 06. 27. (목)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내 저소득 장애인 15가구를 방문하여 밀반찬 도시락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방충망 교체사업을 신청한 20가구에 대해 방충망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도2동 민속보존회 강릉단오제 공연



일도2동 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는 일도2동민속예술공연 팀 70여명을 이끌고 2019. 06. 06(목) 강릉지방의 향토 제례 의식인 '강릉단오제'에 참여하여, 제57회 탐라문화제 민속 예술경연 최우수작인 일도2동의 「사또놀이」공연을 펼쳐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와 호응을 얻었으며 제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자율방재단 2019년 풍수해 대응훈련 전개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오영진)에서는 2019. 07. 24(수) 17시 30분에 일도2동복지회관 일대에서 동직원, 지역 자율방재단 및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일도2동 풍수해 대응훈련을 전개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2동경로당 급식제공 및 재능기부」 무료 공연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부태진, 강창근)에서는 2019. 05. 29(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일도2동경로당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급식제공 및 재능기부 협약업체인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호)의 민요공연과 해원어린이집(원장 김혜정), 내친구어린이집(원장 임순여) 원아들의 재롱잔치를 개최하였다.

드꽃

사진/고재민
주민주치위원



물봉선

물봉선은 산골짜기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1년초이다. 줄기에는 물기가 많다. 8~9월에 피는 꽃은 나팔 모양의 붉은 자주색으로 꽃자루가 길게 뻗으며 자주색 반점이 있다.

좀비비추

좀비비추는 산골짜기나 풀밭 등지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난다. 7~8월에 피는 꽃은 자주색이며 꽃줄기는 약30cm 내외로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 모여 달린다.



관내 학교 이문지문

인화초등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인화좋은아버지회 주관으로 6월 22일 토요일 학교 급식실에서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운영하였다. 30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소떡과 모짜렐라치즈피자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와 함께 요리를 완성한 후 어머니를 초대하여 시식하기 활동을 하면서 사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제2회 도체육회장배 농구대회 우승, 준우승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7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함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제2회 도체육회장배 농구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 남자초등부에는 인화초 A, 인화초 B, JBLC, JAWS, 4개 팀이 참가하여 풀리그로 치러졌다. 인화초 A팀이 3승, 인화초 B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경기를 하였으며 인화초 A팀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 인화초 B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인화초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은 본 대회를 통해 패어플레이 정신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서로 격려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다.

동광초등학교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 학부모교실 운영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6월 19일(수) 10시부터 12시까지 교무실에서 2019년 행복 찾기 주제로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세상'을 운영하였다. 이번 학부모교실에는 23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행복도 나의 작품이다, 스트레스 관리 및 소통을 위한 대화, 행동유형 검사(DISC)를 통한 나와 타인의 이해' 등 강연과 검사를 통해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완국강사님께서 자기 감정 관리와 자기 사랑하는 법과 대인관계를 제주의 재미있게 강의하여 웃음을 자아냈고 수세미를 직접 만든 것을 선물하면서 학부모님의 행동스타일을 비교 설명하여 웃음 폭탄을 선사하였다. 이번 학부모교실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시며 가시는 발걸음마다 웃음이 넘쳐났다.

일도초등학교

일도초,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6월 10일(월)~6월 11일(화)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 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제주보건소 치위생사 선생님께서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건강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불소용액양치 사업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들이 개인별 양치 컵과 칫솔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양치습관을 실천하며 구강건강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 2019학년도 제2기 전교 어린이 회장단 선거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7월 22일(월) 우리 학교 다목적실에서 2019학년도 제2기 전교 어린이 회장단 선거를 하였다. 전교 어린이 회장에 3명의 후보, 6학년 부회장에 2명의 후보, 5학년 부회장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후보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중간놀이 시간에 4~6학년 교실에 찾아가 자신 소개 및 공약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늘 다시 한번 행복한 학교를 위해 자신들이 실행할 공약을 내세우며, 열띤 유세를 하였다. 각 후보의 연설을 지켜본 4~6학년 학생들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개표 결과, 전교 어린이 회장에 이은석 학생이, 6학년 부회장에는 김현진 학생, 5학년 부회장에는 윤승언 학생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 제주어말하기 교육청 예선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6월 28일(금), 제주시 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19학년도 제주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교내 제주어말하기대회에서 선발되어 학교대표로 참가한 5~6학년 5명의 학생들(6학년 김재원, 5학년 문해원, 홍서연, 고주현, 김현욱)은 이날 무대에서 '우리도 마농또래기 고추묵!'이라는 현실감 있는 주제를 선정해 통통 튀는 몸짓과 제주어를 실감나게 구사하여 선보임으로써 관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2학기에 개최되는 제58회 탐라문화제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다시 한 번 제주어 말하기 실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항

◆ 행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
- 소화전·급수탑·저수지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

-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가능
-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 안전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
- 출항 전 안내의무도 낚시어선으로 확대 적용

◆ 질서

▲ 공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아동·청소년의 공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마적용

▲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월 17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 강화
-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함
- 부패사건에만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을 공공기관 신고 사건에도 지급

◆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 특정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전환
- 재규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
-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 허용

▲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
-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확대

◆ 농림·식품

▲ 식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축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 도입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 시행
-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지방·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 지정
-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식물검역대상 아님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 식물검역대상이 아님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

◆ 환경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
-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토록함
- 정수기 심의절차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돼 사전심의의 통과한 제품만 종합심의를 받는다

◆ 보훈

▲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

-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법률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 병무

▲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폭력행위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 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

▲ '군 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
-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만 군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허용(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원 수단으로 악용 사례 방지)

◆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받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 포함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대상 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도 주소 등록지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가능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본격화
- 결혼자금이나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쓰는 생활안정자금(500만원 이내)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전·월세 주택자금(4천만원 이내)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정자격 제도를 적용
-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

◆ 고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 7월 1일부터 시행
-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급전, 물품, 현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
-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 금지

▲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능

◆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
- 추가지급등 정산은 이듬해 9월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추가
- 자연재해로 파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확대

▲ 카이이동 서비스

-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 가능
- 주거래 카드 변경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쳐

◆ 보건·의료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1 수준

▲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 7회, 동결배아 3회 → 5회, 인공수정시술 3회 → 5회로 확대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

▲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

▲ 목욕탕·찜질방 레이저온돌 수질 기준 강화

- 7월부터 목욕탕을 순환·여과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를 쓰는 목욕탕(목욕탕·찜질방)의 수질 기준 강화

◆ 복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 기존 1~6급 장애인등급제는 폐지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급 기준이 변경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

-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제6회 일도2동고마로마문화축제

일 시

2019. 10. 18.(금) ~ 10. 19

장 소

신산공원 북측 (구. 호남석재 사거리)

주 최 · 주 관

일도2동고마로마문화축제위원회

행 사 내 용

전야제 음악회, 마제, 거리행진,
청소년 락 페스티벌, 어린이 사생대회,
가수초청 공연, 노래자랑, 부스 체험 운영 등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도

“작은 편의보다는
기초질서를 지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기본

기본은
모든 사람의
기초와 균형을
알립니다

쓰레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자원입니다.
올바른 주·정치는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화단·보도 위
주차 안 하기



정착주민 지원제도 홍보



정착주민지원 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20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 등 지원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설치
- 정착지원센터 운영 등

- 정착주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정착주민의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 정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부서별	지원내용
자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지원업무 총괄
친환경농업정책과	귀촌·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원	귀농인 교육에 관한 사항

정착주민 지원센터 안내

- 정착주민 지원 센터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읍·면·동)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 상담 등 전담 창구 운영 → 이주정보 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 교육 지원 등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사업 지원

- 목적**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합·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
- 지원대상** 정착주민 지원관련 활동단체, 법인 등(공모 선정)
- 지원기준**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른
- 사업내용** 정착주민, 지역주민 참여 마을 발전사업, 지역교류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문화 교류, 제주바로일기, 정착주민재능기부, 이주민응용사업, 지역과의 소통·홍보사업

제주정착 정보 제공

- 목적** 이주 희망자 및 정착주민들이 제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 주요콘텐츠** 제주생활질문 : 제주도 소개, 생활민원안내, 육아와 보육 등
정착지원사업 :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착주민 제도 운영 등
- 제주 정착정보 사이트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제주소개 ▶ 제주정착정보 (<http://www.jeju.go.kr>)



2019년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 안내

차고지증명 제도란? 자가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도 동지역에 한해 중·대형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중·대형 전가차 포함) 시행합니다.
(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대상차종	중 형	차 량 분 류 기 준	대 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소형세면 초과		배기량 2,000cc 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세면 초과 길이 9m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m 이상
와상자동차	최대길이 10m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제1종저공해자동차	2019. 7. 1일부터 중·대형 전가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대용량자동차 등		

단, 소형세면 차량 길이 4.7m 이하 배기량 2.0L 이하 중·대형 전가자동차 제외

③ 신청절차

구분	신청·접수	차고지현장확인	증명서 발급
연령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계정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④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및 차종별 예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고지증명 차종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자동차 (대형 2007년 5월 1일, 중형 2017년 1월 1일 이전) 2019년 7월 1일 현재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소형자동차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예: 소방차, 경찰차 등) 중·소형자동차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목적 차량(예: 소방차, 경찰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차 : 코르세라, XC60, 그랜저, 제네시스, 레온, 제이콘 등 중형차 : 아반떼, 쉼비트, XC3, 코르세라, 아이오닉EV, 혼데 EV 등 미입력된 경우 : 배기량 2.0L 이하 중·대형 차량 제외 차량 제1종저공해차 : 제1종저공해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도 차량관리과(☎728-3232~3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가 또는 집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

중점
정비
사항

- 도로나 보도 위 물건 진열행위, 도로변 좌판 진열행위
- 도로변 물통·화분·패타이어, 각종 잡채물 적치행위
- 통행불편 장애요인 및 미관저해 요소



단속
관련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정용 허가)
- 도로를 정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에 토석, 임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정서를 만들기 위해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청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